

전남대 치전원, 올해부터 고졸자도 뽑는다

치의학·학·석사 통합과정' 신설 35명 선발

학사 3년·석사 4년 학위 받은 후 사회 진출

지난 9년 동안 4년제 대학교 졸업 자만 입학이 가능했던 전남대 치의학 전문대학원(이하 치전원)이 올해부터 고등학교 졸업자를 선별한다.

전남대에서 치의학·학·석사학위를 7년 만에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우리나라 치과대학 11곳 중 치전원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대학은 전남대를 비롯해 서울대와 부산대 등 3곳. 이 중 전남대와 서울대 치전원은 올해부터, 부산대는 내년부터 학·석사 통합과정을 신설해 당초 입학점원의 50%를 신입생으로 뽑는다.

이들은 치전원에서 3년의 학사과

정(35명)을 이수한 후, 치전원에 입학(35명)하는 학생들과 함께 4년간의 석사과정을 거쳐 학위를 받고 치과의사로 사회에 진출하게 된다.

전남대 치전원은 학·석사통합과정으로 총 35명의 신입생을 선발하며, 정시모집에서는 25명 이상을 뽑을 예정이다. 당시 가군은 수능 성적만으로 20명(수시 미등록 인원 1~2명 추가 예정)을 모집하고, 당시 나군은 수능 50%와 학생부성적 50%로 5명을 모집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인터넷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http://admission.jnu.ac.kr> 또는 <http://dent.jnu.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석사 통합과정, 6년제 치과대학



전남대 치전원은 50여 명의 우수한 교수진을 중심으로 이론과 임상교육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선진교육을 선보이며 세계 우수한 치과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때문에 전남대 치전원이 새롭게 도입한 학·석사 통합과정은 일반 치과대학의 6년제 학사과정보다 훨씬 수준 높은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치과의사 지망생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전형으로 인식되고 있다.

◇전남대 치전원 3대 장점 '선진교육환경, 글로벌 인재 양성, 단단한 연구력'=전남대 치전원은 서울대, 부산대와 함께 우리나라의 3대 치전원으로 손꼽히고 있다. 1955년 의과대학 치의학과로 시작해 1980년 치과대학으로 독립했으며 2005년 치의학 전문 의료인 양성을 위한 치전원으로 전환했다. 치전원은 50여 명의 우수한 교수진을 중심으로 이론과 임상교

육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선진교육을 선보이고 있으며 임상실습 자체 및 최신 실험실습기자재, 첨단강의실과 연구실, 학생 진료실 등 교육환경도 세계 유수의 치과대학과 견줄에 전혀 손꼽을 정도다. 지방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현대적 시설과 최첨단 의료 장비를 갖춘 치과병원 운영도 치전원의 경쟁력을 힘들 보태고 있다.

전남대 치전원은 단단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세계적인 인재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치전원은 매년 겨울방학마다 3학년 학생들을 영국, 미국, 뉴질랜드, 일본 등 선진 치과대학 및 치과병원에 과연해 현장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또 알바니아, 코소보, 몽골 등에서 우수한 교수들과 학생들을 초청해 장단기 연수 교육을 실시하며 선진 의료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이밖에도 치전원은 교수와 학생, 동문이 함께 봉사단을 꾸려 방학과 주말을 이용해 방글라데시, 미얀마, 광주 외국인노동자건강센터, 노인복지관 등 국내·외 의료봉사를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섬김의 마음과 따뜻한 인성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전남대 치전원은 연구 경쟁력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치전원은 2011년 정부로부터 MRC선도 연구센터로 선정돼 연간 10억원 총 7년간 지원을 받으며 연구과제를 수행, 미래 의료 산업의 신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논문경연대회를 개최해 학생들의 연구능력을 기우고 학생·교수 간에 열띤 토론과 소통을 통해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전남대 치전원 김병철 원장(치의학과 교수)은 "학생들이 좋은 환경과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열정과 자신을 갖춘 전인적 치의학 인재로 성장해 앞으로 치과의료와 치과산업을 이끌어 가는 글로벌 리더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학교는 교수와 동문, 학부모들이 힘을 합쳐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장학금 혜택을 늘리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캠퍼스 소식

광주여대 '품격여성 아카데미 1단계' 진행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이선재)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대학 학제회의장과 실습실에서 '품격여성 아카데미 1단계' 과정을 진행한다.

이번 과정은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품격을 높이기 위해 2013년도부터 실시하게 된 '품격여성 교육인증제' 프로그램의 하나로 그 중 '품격여성 아카데미 1단계'는 예비 사회인으로서의 기본소양과 인성을 갖춘 여성인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남부대 호텔조리학과 '이금기 요리대회' 금

남부대학교 호텔조리학과 손용재(3학년)학생이 최근 서울 국제조리직업학교에서 열린 '제 7회 이금기 요리대회'에 참가해 금메달을 수상했다. 남부대 호텔조리학과는 작년 금메달 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하는 평가를 올렸다.

손용재 학생은 이번 대회에서 한국의 식재료에 중국요리를 접목한 '보리볶음밥과 두반장 소스를 결합인 스타터프트 설깃살'을 만들며 호평받았다.

남부대학교 호텔조리학과는

전문화된 조리실습실에서 우수 교수진의 체계화된 강의·실습으로 실무능력을 쌓아 다양한 음식 개발은 물론 2013 지방기능경기 대회, 서울국제요리경연대회, 2013 퀄팅푸드요리경연대회, 무안연꽃축제, 남도음식경연대회 등 국제, 국내 조리경연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호텔조리학과 김희기 학과장은 "앞으로 학생들이 여러 분야의 전문 스페셜리스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광주대 GU창업경진대회 '젊은 아이디어' 빛났다

허종·공푸름 학생 등 16명 수상... 창업자금·경영지도 등 지원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종) 산학협력선도사업단(링크사업단)은 학생들의 창업의욕 고취와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등을 위해 최근 대학 창업교육센터에서 '2013년도 GU창업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창업경진대회에서 1등 매원상인 링크사업단장상은 '유해야생동물 퇴치 목적의 LED 장치'를 제출한 허종(신재생에너지과 3년) 학생과 '태양광 로봇기술을 응용한 유해조수퇴치용 허수아비 개발'을 내놓은 공푸름(시각영상디자인과 3년) 학생

이 공동 수상했다.

2등 극기상인 창업보육센터장상은 신선미(시각영상디자인과 4년) 학생과 박영진(산업디자인과 졸업)씨가 받았고 장려상인 창업교육센터장상은 박세원(국방기술학부 2년) 학생과 한지연(뷰티미용과 4년) 학생이 공동 수상했다.

링크사업단은 이와 캡스톤디자인, 아이디어, 시제품, 창업 등 4개 부문에 걸쳐 10명의 학생에게 특별상을 수여했다. 광주대는 총 16명의 대학 교비를 포함한 창업자금지원, 사무실 제공, 경영지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대는 2014학년도 정시모집에서 '가'군 259명, '다'군 121명 등 2개 모집군으로 분할해 총 428명을 선발한다.

비율을 보면 모집인원 2031명의

포함한 창업자금지원, 사무실 제공, 경영지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대는 2014학년도 정시모집에서 '가'군 259명, '다'군 121명 등 2개 모집군으로 분할해 총 428명을 선발한다.

비율을 보면 모집인원 2031명의

21%이다. 군별 전형은 '가'군(전형총점 1000점)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60%와 수능성적 40%를 반영해 뽑는다. 간호학과는 학생부 반영없이 수능 90%와 면접 10%로 선발하며,

수능